2015.6.15 361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 ‘큰 인기’	파리
문화·관광	4	‘밀라노 엑스포 2015’에 발맞춰 피렌체 지역엑스포 개최	피렌체
	6	상징적 공공예술 작품으로 시 랜드마크 조성	버밍엄
	8	클럽·주민 소음갈등 온라인 클럽지도로 막는다	베를린
산업·경제	10	창업예정자 발굴서 육성까지 일체적 지원	도쿄
사회·복지	11	‘어린이 건강하게 자라게’ 종합지원계획 수립	도쿄
환경·안전	14	대기오염 주범 ‘黃票車’ 퇴출계획 시행	상하이
도시교통	17	‘보행·대중교통 이용 편리’ 중심가 도로 대대적 정비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주택	19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도심 영구 거처 제공	스톡홀름
	21	대규모 도심공원 만들어 지역경제 살렸다	버밍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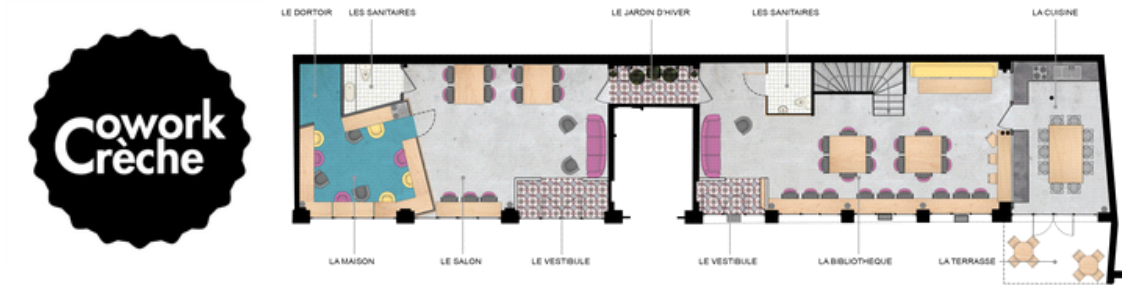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 '큰 인기'

프리랜서 부모 등, 아이 돌보며 일할 수 있어 '일석이조'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파리市 11구에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Coworkcrèche, 어린이집을 뜻하는 crèche와 cowork의 합성어)'은 프리랜서나 소규모 그룹으로 일하는 젊은 부모가 3세 미만의 영아를 가까이에 두고 일할 수 있는 공간임. 전일제나 반일제로 이용이 가능함.



전일제·반일제로 운영…다용도로 내부 구성 바꿀 수 있는 복합공간

– 이 공동작업실은 3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며 프리랜서 작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젊은 기업인 등 사무실 없이 혼자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일하는 작업자가 역동적으로 연대하고 좋은 자극을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임.

- 이 공동작업실은 부모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함. 어린이집은 추가 서비스로 이곳의 중심공간이 아님. 아이를 동반한 부모나 혼자 오는 작업자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협력 작업을 할 수도 있음.

- 이 공동작업실은 모든 의미에서 복합공간임. 다용도이며 내부 구성이 변동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동작업실임.

- 파리시 11구 바스티유 광장 근처에 자리 잡은 이 공동작업실은 300㎡ 규모에 내부는 조용하고 외부엔 작은 테라스가 있으며,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음. 또한 건물 외부와 내부에 녹지를 조성함.

  - 볕이 잘 들고 모듈 변경이 매우 쉬우며,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금속과 유리로 된 구조물이 두 개의 전용 회의실을 분리시켜 놓음.

  - 오픈스페이스 형식으로 꾸며진 작업실에는 총 50석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설비도 부모 친화적으로 되어 있음. 아이를 동반한 작업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고 아이들 놀이공간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갖춰져 있음. 독립된 어린이집은 6월에 개소할 예정임.

  - 2015년 6월에 개소할 어린이집은 일종의 협동경제 어린이집으로, 만 2개월 반에서 3세 미만의 영아 30~50명을 수용할 수 있음.

오픈스페이스 형식 작업실엔 총 50석 좌석…설비도 부모 친화적

- 이 공동작업실을 설립한 뮈리엘 이그무라센(Muriel Ighmouracène)은 가정방문 육아 전문가이자 파워블로거, 육아서 작가, 커뮤니티 매니저 등의 여러 활동을 결합해서 활동해 온 프리랜서 작업자임.

  - 그는 집에서 작업할 때는 고립감이 있고 카페에 가서 일할 때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어려움을 겪다가, 파리시가 19구에 개설한 공동작업실 'Laptop'에서

주 3일간 일하면서 큰 만족을 느끼게 됨. 그리고 이런 공동작업실에 어린이집을 더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됨.

- 그리하여 파리시에 필요한 공간을 요청하고, 본인의 인맥을 가동해 이러한 수요를 가진 프리랜서 부모들을 모아 'CoworkCrèche 협동조합'을 결성함. 이 사업을 실현하는 데는 파리 시청과 일-드-프랑스 도청, 파리 11구청, 가족복지기금, 파리건축국, 일-드-프랑스 도청 산하 협동경제기구 등의 투자와 협조가 이루어짐.

'공동작업-생산성, 사생활-직업생활' 조화 이루는 프로그램 운영

- 이 공동작업실은 공동작업-생산성과 사생활-직업생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혁신기업 · 협력경제 ·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작업실 이용자 간의 경험과 대안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부모와 가족을 위한 행사나, 아이와 어른을 위한 문화교실도 개최할 예정임.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설비		- 프린터 · 스캐너, 고속 와이파이 · 인터넷 전용선 설비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차 테이블 - 월정액 이용자와 자주 오는 이용자에겐 사물함 제공 - 요리 기구와 그릇이 갖추어진 부엌
이용 비용 (부과세 별도)	작업용 좌석	- 반일권 10유로(약 1만 2,500원) : 10장짜리 세트 구매 시 9유로로 할인 - 전일권 20유로(약 2만 5,000원) : 10장짜리 세트 구매 시 18유로로 할인 - 월정액 350유로(약 43만 8,000원) : 월간 고정 좌석제
	회의실	- 반일권 : 150유로(약 18만 8,000원) - 전일권 : 250유로(약 31만 3,000원) - 저녁권(저녁 6~9시) : 200유로(약 25만 원)
이용 시간		- 비정기 이용자 : 월~금 아침 9시~저녁 7시 이용 가능 - 월정액 이용자 : 하루 24시간, 주 7일 상시 이용 가능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coworkcreche-un-espace-de-travail-partage-pour-parents/rub_1_actu_156021_port_24329

http://fr.ulule.com/coworkcreche/

http://www.coworkcreche.org/

문화·관광

‘밀라노 엑스포 2015’에 발맞춰 피렌체 지역엑스포 개최

이탈리아 피렌체市 / 문화·관광

○ 피렌체市는 밀라노 엑스포 2015에 맞춰 피렌체 지역 엑스포(Firenze Fuori Expo)를 ‘Work'n Florence-Centuries Experience Working with you’라는 주제로 개최함. 토스카나 지방청, 피렌체시청, 피렌체 홍보청, 피렌체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밀라노 엑스포의 ‘지속 가능한 지구와 식량’이라는 주제에 맞게 피렌체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로 구성됨.

– 밀라노 엑스포 2015(Milano Expo 2015)가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of Life)’라는 주제로 2015년 5월 1일에 공식 개막함. 6개월간 전 세계 145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인류가 처한 식량문제의 심각성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됨.

  • 피렌체는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인 음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피렌체에서도 엑스포의 분위기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함. 이 행사는 100만 명의 관광객을 피렌체로 유치하고자 함.

지역·음식 주제로 다양한 행사 마련해 관광객 100만명 유치 노려

밀라노 엑스포 2015 포스터

피렌체 지역 엑스포 포스터

– 이 엑스포에서는 피렌체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꼽히는 젊은 사회적 기업들의 패션 · 인테리어 · 수공예품 · 음식 등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과 혁신가들의 쇼핑몰' 행사를 개최함.

-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 내는 젊은 혁신가들을 관람객과 연결시켜 주는 이 행사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 2주마다 바뀌는 주제에 맞춰 참여자가 바뀌게 되어, 6개월 동안 관람객은 새로운 창업가와 그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음.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곡물과 빵을 주제로 한 '토스카나 곡물과 빵'이라는 국제 포럼을 개최함. 토스카나 농업의 발현지인 아카데미아 데이 지오로조피리(Accademia dei Georgofili)와 과거 피렌체 공화정의 첫 번째 제분소였던 오르산미켈레(Orsanmichele) 성당과 박물관에서 포럼이 개최되어 더욱 의의가 있음.

  - 일반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고대 문서와 희귀 자료들을 전시하고,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전통방식의 제분 공정법을 직접 체험해 보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주식의 역사를 공유하는 자리임.

  - 글루틴 과민반응 · 알러지 등 현대인이 경험하는 음식 관련 질병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통적인 제분법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될 예정임.

  - 피렌체 장인이 생산하고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킨 수제 맥주를 관람객들이 직접 시음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이벤트로 마무리할 예정임.

- 그 밖에도 피렌체 지역 엑스포에서는 아르노 강에 재활용품으로 만든 생태 뗏목에 온실을 설치하여 식물을 키우거나, 고대 수도원의 식단을 체험하고 응용해보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음.

http://www.expo2015firenze.it/

http://www.turismo.intoscana.it/

http://theflorentine.net/

상징적 공공예술작품으로 시 랜드마크 조성

영국 버밍엄市 / 문화·관광

○ 버밍엄市에서는 버밍엄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공예술품을 창조하고자 '상징적 공공예술 프로젝트(Big Art Project)'를 추진함. 이 프로젝트는 버밍엄 시민사회(Birmingham Civic Society)가 주최하고 시의회가 지원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는 모금한 후원금으로 선발된 예술가를 지원하고 최종 예술작품을 선정할 예정임. 버밍엄시는 프로젝트로 설치될 예술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시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나 덴마크 코펜하겐에 설치된 작은 인어상(Little Mermaid)과 같은 작품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임.

  - 더 나아가 시는 이 프로젝트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 혜택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함.

시카코 '클라우드 게이트' 같은 작품 설치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 기대

시카고의 클라우드 게이트

코펜하겐의 작은 인어상

- 2015년 1월에는 작품이 설치될 장소를 East City Park Square로 결정하였고, 2월에는 심사위원이 선출됨. 5월에는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할 예술가를 발표하고, 2016년 초에 최종 작가가 선정될 것임.

-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작은 크기의 3차원 모형으로 제작하여 버밍엄시립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될 예정임. 2018년에는 최종 작품이 공개될 계획임.

– 5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200만 파운드(약 33억 9,300만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확보는 기업 ·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단, 지자체의 세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

- 프로젝트의 의장인 글린 피치폴드(Glyn Pitchford)에 따르면, 이 '상징적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버밍엄시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http://www.birminghambigartproject.org.uk/

http://www.birminghampost.co.uk/news/birmingham-big-art-project-host-624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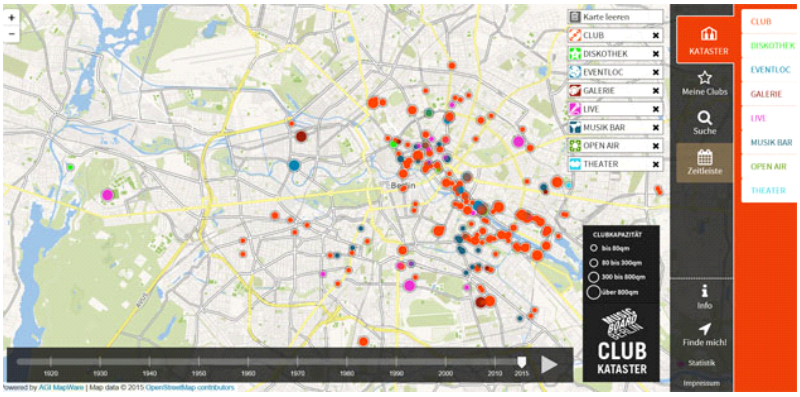
클럽·주민 소음갈등 온라인 클럽지도로 막는다

독일 베를린市 / 문화·관광

○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소음분쟁으로부터 클럽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市 음악위원회 · 클럽협회와 협력하여 시내의 모든 라이브뮤직 · 파티 공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지도(www.clubkataster.de)를 개설함.

– 일명 '클럽등기부(Club-ka-tas-ter)'인 이 지도는 음악산업과 창의산업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소음 분쟁지점도 알려주고 있음. 이 지도는 클럽 등의 공간과 인근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임.

100년 넘은 클럽문화 보호 목적…분쟁지점, 각종 클럽 정보 담아



온라인 클럽 지도(www.clubkataster.de)

– 베를린은 밤문화의 전통이 강한 도시로 세계적인 파티문화와 클럽문화를 주도하고 있음. 시는 클럽문화의 도시이미지 형성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2013년 음악위원회(Musicboard)를 구성하였으며 라이브 음악과 파티문화를 지원해 옴.

- 베를린에는 지속적으로 라이브무대가 증가하고 외지로부터 창의적인 인력과 클럽애호가들이 몰려들어 활기찬 문화로 발전함.

- 그러나 최근에 클럽의 감소추세가 뚜렷해짐.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

역의 확대, 도심의 주거질 향상 등으로 기존의 클럽과 주민 간에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소음분쟁에서 클럽은 보호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48년 동안 운영되던 역사적인 클럽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함. 점차 도심에서 클럽이 추방되는 추세로 번져나감.

- 시는 베를린의 클럽문화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 앞으로 베를린시에서 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은 계획단계에서 이 클럽지도를 고려해야 함.

  - 만일 자신이 건축하려는 위치의 주변에 이미 클럽이나 라이브무대 등이 있다면, 그 소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방음장치 설치 등의 소음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이 지도는 총 373개의 음악공연장과 파티업소 등의 위치정보를 표시함. 그중 123개가 클럽임. 그 밖의 장소들은 디스코텍, 이벤트 로케이션, 갤러리, 라이브, 뮤직 바, 옥외업소, 극장으로 분류됨.

  - 각 장소표시에는 상호명과 함께 설립시기, 규모, 운영주체,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가 명시되어 있음. 이 업종의 자주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 폐업 · 이전 등의 변화과정도 명시함. 1913년부터 2015년까지 100년 넘게 성장한 베를린의 클럽문화 변화과정도 추적할 수 있음.

  - 각 장소의 위치 표시는 공연장소에 대해 실질적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클럽협회가 맡음. 그러나 불법업소나 임시적인 장소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장소들만 포함시킴.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506/nachricht5618.html

http://www.morgenpost.de/berlin/article141890661/Berliner-Senat-will-die-Klubs-der-Stadt-besser-schuetzen.html

산업·경제

창업예정자 발굴서 육성까지 일체적 지원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도쿄都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예정자의 발굴 · 육성부터 성장 · 촉진까지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3년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임.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주제 제안형'과 '주제 지정형'이 있음.

  • '주제 제안형'은 도쿄도의 산업진흥 시책이나 도쿄의 산업특성·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방침에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있어야 함.

  • '주제 지정형'은 도가 지정한 주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여성기업인 지원 인큐베이션 허브'와 '콘텐츠 산업 인큐베이션 허브'를 추진하고 있음.

창업생태계 구축 포석…선정된 사업자에 3년간 사업경비 지원

- 지원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후에 교부 결정을 받아야 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받게 되는 보조금의 보조율 및 보조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주제 제안형'은 보조대상으로 인정되는 경비의 1/2 이내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매년 1,500만 엔(약 1억 3,300만 원)으로 3년간 받을 수 있음.

  • '주제 지정형'은 1 · 2년차 대상 경비의 2/3 이내, 3년차 대상 경비의 1/2 이내를 보조받을 수 있음. 한도액은 1 · 2년차는 각 2,000만 엔(약 1억 7000만 원)씩, 3년차는 1,500만 엔(약 1억 3,300만 원)까지임.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4/70p4l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4/DATA/70p4l100.pdf

사회·복지

‘어린이 건강하게 자라게’ 종합지원계획 수립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도쿄도 어린이·육아 지원 종합 계획(2015~2019년)’을 책정함.

- 이 계획은 모든 어린이가 개성과 창조력을 늘려가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육아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와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신·출산·육아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 어린이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도

- 1. 임신·출산·육아의 일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핵가족화 및 지역 연계의 약화로 임신 · 출산 · 육아에 불안감을 느끼는 임산부나 보호자를 위하여 일괄적 지원을 제공

  - 임신 출산에 관한 지원 추진 : 임신 · 출산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고, 보험 진료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불임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소아 · 부모 의료 체제의 정비 : 소아 구급 의료 체제를 확보하고 동시에 고위험 임산부와 고도 의료가 필요한 신생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

  - 육아 가정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구조 확보 : 자치구 및 지역 단체의 육아 가정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담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린이의 건강 확보·증진 :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보급 계발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교나 탁아소 등의 사고 예방이나, 긴급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인재 육성을 지원

- 2. 유아기의 교육·보육 확충 : 유아기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 · 육아 시스템을 확보하여 육아 가정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실시

  - 취학 전 교육 강화 : 유아기의 어린이 교육지원을 지역에 정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마을이나 학교 법인 등과 연계하여, 도내의 유치원, 보육 시설의 질 높은 유아교육을 추진

  - 보육 서비스의 충실 : 종일보육 등 부모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사업자를 지원하고, 특히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 보육을 지원

  - 인증 어린이집의 확보 : 각 자치구의 확보 계획을 중심으로 목표 확보 수를 설정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증 어린이집을 확보

  - 취학 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고, 교원이나 보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설명회를 개최

- 3.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 어린이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 어린이의 자립성장을 위한 환경 정비 : 학력 진단평가나 수업을 개선하고, 왕따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 가정 · 주민 · 관계자과 협력함. 또한 국제 사회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환경을 정비

  - 차세대 인재 육성 추진 : 자치구 ·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비행 청소년의 재활 지원을 추진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을 지원

  - 방과 후 공간 마련 : 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자치구 · 지역단체가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과 후 아동지원 요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

- 4.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 :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와 보호자의 현황에 맞추어 지원

- 아동 학대의 예방과 대응력 강화 : 자치구의 육아 지원기관, 아동상담소과 연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의 보호 · 관리, 보호자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정비

- 사회적 양호체계의 확충 :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과의 교류를 가지면서 사회적 양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가정화 · 소규모화

- 장애아동 시책 전개 : 다양한 어린이 · 육아 지원시책에서 장애아동을 고려해야 하며, 어린이의 성장 단계,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며 각 개인의 요구에 맞는 특별 지원교육을 추진

- 만성질환 아동의 자립지원 : 상담지원의 확충 및 자립지원 요원의 배치로 질환을 앓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확보

– 5. 어린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등이 자유로운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구축

- 일과 육아의 병행 실현 : 일과 육아의 균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실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

- 어린이를 범죄 피해에서 지키기 위한 활동 : 어린이가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어린이 돌봄 자원봉사자의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추진 : 어린이가 교통 법규를 지키고 스스로가 위험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 양질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확보 : 육아 세대를 배려한 주택공급과 공공주택의 육아 세대 입주기회 확대를 추진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3/70p3v300.htm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3/DATA/70p3v300.pdf

환경·안전

대기오염 주범 '黃標車' 퇴출계획 시행

중국 상하이市 / 환경·안전

○ 상하이市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는 '제6차 환경보호 3개년 행동계획'에서 8개 분야 232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시는 이 계획에서 고농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황표차(黃標車)'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1990년대 접어들어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중국 내 대기오염이 매우 심화되었고,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정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8살 여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기오염에 대한 중국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고농도 배기가스 배출…연식이 10년 넘는 노후차량이 대부분 해당

스모그가 짙은 상하이 시내의 모습

•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삶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었음. 2015년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 핵심 과제로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상하이시는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를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중국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1일부터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황표차' 라벨

'황표차' 주행제한 표지판

  - '황표차'란 배기가스가 국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으로, 상하이市는 대상 차량의 자동차 유리 앞면에 황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황표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상하이시가 이처럼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황표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속에 스모그를 형성하는 이산화황(SO_2)과 이산화질소(NO_2)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스모그를 비롯한 대기 오염이 건강 자체에도 큰 위협이지만 암을 유발하여 사망케 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상하이시 교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황표차'와 노후차량의 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시는 2015년에 '황표차'와 노후 차량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을 계획함.

- 상하이시가 시행한 '황표차' 주행 규제범위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7월 1일부터 S20 외환고속도로 이내의 쾌속도로와 지면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었음.

- 201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규제범위에 상하이 라오청 고속도로(G1501、189㎞)가 '황표차'에 대한 주행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현재 주행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상하이 '황표차' 주행규제범위 확대 과정

– 시는 '황표차'의 퇴출과 주행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폭넓게 홍보하여 도시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황표차' 주행규제 범위를 확대실시하여 상하이 시내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12344/u26ai41948.html

http://news.163.com/15/0318/09/AKVT0PCA00014SEH.html

http://www.chinadaily.com.cn/hqpl/zggc/2015-05-04/content_13642295.html

http://www.cnhuadong.net/system/2015-2-28/content_1369100.shtml

도시교통

‘보행·대중교통 이용 편리’ 중심가 도로 대대적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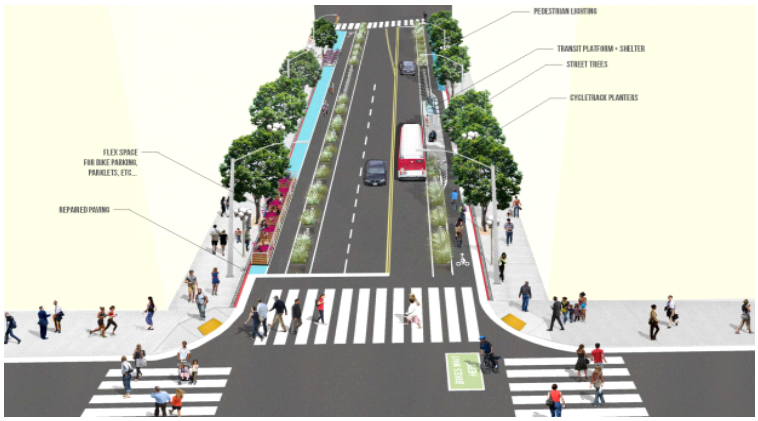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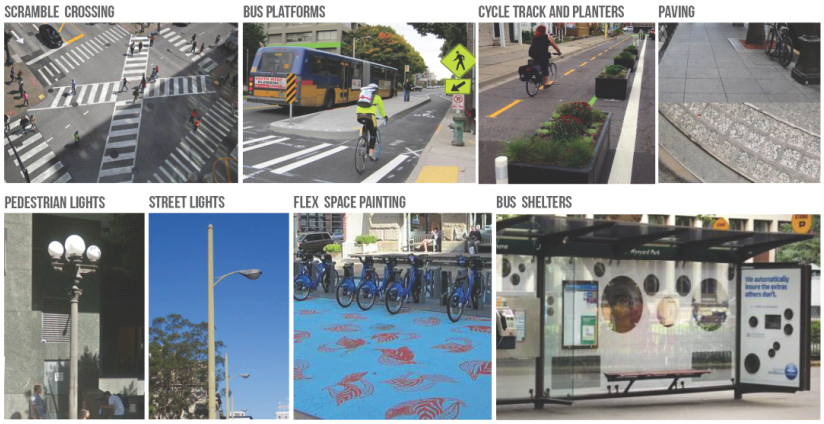
○ 로스엔젤레스市는 도심지역의 보행과 자전거 ·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피가로아거리와 올리브거리 간 7가의 도로시스템과 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함.

– 7가와 피가로아거리에 새로운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여러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한 신호에 모든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를 멈추도록 함.

- 4개 블록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동차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화분을 배치하여 완충역할을 하게 함.
-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과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소(bus shelter)를 설치함.
-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곳의 커브를 연장하는 벌브아웃(bulb-outs)을 설치함.

새로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하고 버스정류소에 플랫폼·지붕도 설치





다운타운 도로체계 및 경관 개선계획

- 가로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가로등도 기존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예정임.

- 7가만의 건축적인 모티브를 가지기 위해 일관성 있는 색 구성을 가진 새로운 간판과 기둥의 배너를 설치하여 브랜딩을 구축할 계획임.

- 이외에도 하버 프리웨이를 지나는 7가와 윌셔 다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기존 고가도로 울타리를 더 높게 설치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보행 조명을 설치할 예정임.

- 고가도로 울타리에는 지역명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글씨를 새겨넣어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관요소로 사용하고자 함.

– 이러한 도로 환경 개선은 2015년 겨울부터 시작되어 2017년 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이낸셜 지구와 시티웨스트 사이의 보행 경험을 좀 더 쾌적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www.planetizen.com/node/77604

http://urbanize.la/post/dtlas-new-and-improved-seventh-street

도시계획·주택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도심 영구 거처 제공

스웨덴 스톡홀름市 / 도시계획·주택

○ 스톡홀름市 시의회는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스톡홀름 노숙자 중 일부에게 도심 내 영구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대가족 · 노숙자 · 마약 중독자가 스톡홀름 교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임.

- 스웨덴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매해 15만 개의 새 주택을 건설하여, 내 ·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2015년 3월에 발표함.

  • 스웨덴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결을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따로 두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누구나 공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음. 공공주택과 개인소유의 주택 모두 도시주택 서비스에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스톡홀름호텔헴재단 운영 주택에 거주…"취약계층 교외 집중거주 방지"

- 현재의 주택난은 특히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극심하게 나타남. 스톡홀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야 함. 스톡홀름 중심가의 작은 원룸은 매달 4,000크로나(약 53만 5천 원) 정도의 집세가 필요하며, 중개를 통해 집을 계약하면 매달 10,000크로나(약 133만 7천 원) 정도를 집세로 지불해야 함. 현재 스웨덴 성인의 약 1/3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톡홀름의 취약계층 중 대부분은 국가 지침에 따라 이미 시에서 보조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주택이 항상 영구적인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시에서 보조하는 주택은 도심 밖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음.

- 스웨덴 정부의 발표 직후, 스톡홀름시는 노숙자 중 일부에게 도심 내 영구 거처를 제공하는 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스톡홀름호텔헴재단(Stiftelsen Hotellhem in Stockholm, SHIS)이 시행하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계됨.

    - 스톡홀름 시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이 재단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7년간 임대차 계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 이 정책으로 일부 노숙자들은 이 재단이 운영하는 주택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게 됨. 이 재단은 현재 도시 주변 22개 지역에 2,300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

- 스톡홀름호텔헴재단은 젊은이와 노인, 가족, 마약 중독자나 채무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복지 정책으로 제공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시장을 통해 얻는 주택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자 함.

    - 거처를 제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레스토랑이나 접수처에 배치한 직원이 입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그래서 이웃 주민이 노숙자를 위한 주택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에 스톡홀름에서는 계약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프로젝트로 거주자가 영구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느끼는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이 재단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임.

    - 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부 일반인이 노숙자에게 영구 거처를 제공하는 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http://www.thelocal.se/20150326/homeless-to-skip-rental-queues-in-capital

http://www.thelocal.se/20150325/housing-boost-plan-revealed-by-coalition

대규모 도심공원 만들어 지역경제 살렸다

영국 버밍엄市 / 도시계획·주택

○ 버밍엄市는 '동부 공원사업(Eastside City Park project)'을 2013년에 완성하면서 동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모여들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버밍엄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함.

- 이 공원은 버밍엄 지역에서 1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성된 도심내 공원이자, 현재 도심내 단일 녹지 공원 중에서 가장 큰 공원임. 단절되었던 기존 버밍엄시내와 동쪽 지역을 이어주는 녹지 공간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훌륭한 제반 공간의 역할을 함.

  • 조성된 공원은 버밍엄 도심 지역에 2.73헥타르(27,300m^2, 8,258.25평)만큼의 녹지 공간을 제공함. 이 공원은 310그루의 나무와 잘 정돈된 잔디밭, 공용광장들과 188m 길이의 인공 수변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됨.

  • 버밍엄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1,175만 유로(약 199억 원)를 투입함.

130년만에 도심에 조성…단절된 동부·시내 이어주는 녹지공간 제공

'동부 공원사업' 마스터플랜

공원 전경

-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영국 건축가 파텔 타일러(Patel Taylor)가 선정됨. 초기 계획에서 요구되었던 점은 혁신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후에 이 공원 주변에 시행될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형성되기 위한 좋은 기준이 되어주는 것임.

- 이 사업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이 버밍엄 도심 내 훌륭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며 버밍엄 동쪽 지역 재생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이 되었음.

- 사회적 기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에게 넓은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 또한 형형색색의 자연환경과 공원을 가로지르는 작은 운하 등은 공원을 방문한 시민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공간이 되어줌.

– 이 사업은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함. 이를 위해 프로젝트가 추구했던 방향성을 6가지 측면에서 정리함.

지속가능한 재생 사업을 위한 공원 개발방향

6개의 방향성	내용
저탄소 지향 개발	공원은 탄소로 인한 공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후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탄소배출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공원의 흙은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능력이 대기가 흡수하는 능력의 3배이며, 숲 흡수 능력의 5배임.
친환경 냉각 시스템	공원 지표면의 대부분을 잔디 · 나무 · 물로 계획하여 공원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며, 동시에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조건을 제공함.
배수	공원 설계를 통해 물 투과성이 좋은 땅의 면적을 과거 25%에서 52%까지 올리고, 공원의 배수 능력을 높였으며 스며든 물은 하수관을 통해 흘러 내려감.
생물의 다양성	자연 친화적 공원 설계는 생물의 다양성을 향상시켰음. 이는 야생 동물들이 공원으로 이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도심 내에 다양한 군락을 형성함.
효율적 유지 보수	공원의 유지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긴 재료들이 사용됨. 가능한 한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하였고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 쓰레기의 양을 줄임. 이러한 노력들은 공원이 오랜 시간 보전되고 지켜지게 할 것임. 이후에 발생할 도시 개발 사업들로부터 공원이 훼손되지 않고 잘 조화되도록 사전에 조약을 걸어둠.
주인의식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교육을 진행함.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을 실현함.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으며 개발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여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 사업은 전반에 걸쳐 활발한 협업과 협력을 통해 진행됨.

  - 버밍엄시 · Waste Construction社 · 메인 건축가 파텔 타일러 간의 강한 협력 관계로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침

  - 지역 개발업체 Advantage West Midland社와 지방정부 사이에 맺은 파트너십 덕분에, 분할되어 있었던 대상 부지들이 하나의 공원으로 재개발되는 것이 가능했음.

  - 또한 버밍엄시립대학교(Birmingham City University)와 오랜 협력으로 프로젝트가 도시의 학술 · 과학기술 · 문화유산의 맥락 안에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됨.

지역주민들, 재생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도적 역할'

- 지역공동체 및 주민들은 이 재생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해왔음. 이들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알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 지역공동체와 진행된 주요한 협의와 참여과정들은 다음과 같음.

지역 공동체와의 협의 및 참여 과정

6가지 주요 협의과정
1. 2004년에 열린 The City Park Symposium에서 100명 이상의 다양한 구성원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원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 논의함.
2. 2006년 3월 23일에 열린 Eastside City Park 국제 디자인 경진대회와 같은 해 7월 7일 열린 최종 6개의 디자인 팀을 선발하는 자리에서 1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과 20개의 투자자 그룹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이는 공원 디자인 프로세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함.
3. 2006년 시는 버밍엄 전역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공원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을 모음. 이 같은 협의를 통해 축적된 정보는 공원 디자인에 반영됨.
4.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조성된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음.
5. 지역주민들과 대학들은 공원 개발 계획 초기 때부터 공원 관리에 참여함. 특히 대학들은 학생 커리큘럼의 하나로 공원 이벤트 계획을 포함함.
6. 이 지역 교육기관 중의 하나인 New Performing Arts Academy(BOA)는 학생들에게 이 공원을 대상으로 한 많은 공연 및 전시 기회를 주고 있음.

- ‘동부 공원’의 조성으로 버밍엄 동쪽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의 질이 상승함. 이는 수백만의 지역주민과 방문객,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 지역에 찾아오도록 함.

    -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도시재생 키워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된 것임. 이를 통해 앞으로 계획된 재생 사업들이 추진되고 투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다소 소외되었던 네첼스(Nechells)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는 이 공원을 통해 버밍엄 도심과 연결됨. 도심과 연결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짐.

    - 공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함. 시민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서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음.

    - 또한 공원은 100% 휠체어 접근과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CCTV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

낙후된 동부지역 삶의 질 높아지고 일자리도 다수 창출 ‘성공적 재생’

- 버밍엄시는 재생사업의 연장으로 오랜 역사성을 가진 ‘커존스트리트역(Curzon Street Station)’을 고속철도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 역은 1838년 최초로 런던과 버밍엄을 연결하는 철도역이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역임.

    - High Speed 2 Terminal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동부 공원’과 연계되는 재생사업으로 다소 낙후되고 고립되었던 버밍엄 동쪽 지역을 시 중심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영국 전역 대도시를 연결하는 중심지역이 되게 할 계획임.

http://www.birmingham.gov.uk/eastsidepark

http://www.birminghampost.co.uk/business/curzon-street-station-transformed-massive-6750166